2010 새해에는 임 성 균 광주지방국세청장

"세금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에 현실적 도움 주겠다"

금호 연관 기업 적극지원
지역 경제 살리기 앞장
서민생활 침해하는
악덕 고리사채 단속 강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연관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정 목표를 지역 경제살리기로 정해 지역 기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세정지원단'을 적극 가동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금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임 청장은 "납세자·경제단체 등과 다양한 대화채널을 마련해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행정을 펼치겠다"며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시정요구 등 활동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내부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찰, 비위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요량이다.

특히 임 청장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중소기업 지원책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모범성실납세자 우대책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우대적용하는 시책이다. 또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토대로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원책은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자금지원·판로확대 등이 골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타인명의 대여 기업,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유흥업 등에 대한 음성세원발굴을 위해 '세원양성화 전담팀'도 꾸린다.

임 청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책을 유지하되 해외 소득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할 것이다"며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 다각적인 감시·통제시스템이 가동된다.

임 청장은 또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덕고리사채, 고액 수강료 징수행위,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전망과 관련, 임 청장은 "지난해 건설부문 침체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지만, 올해 호전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광주전남 지역도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해 어려운 고비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극복했듯이 올해도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다면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임 청장은 광주출생으로 지난 198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사무관,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서기관,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과장을 거쳐 국세청 감사관을 지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올해도 공기업·금융기관 취업 한파

신규 채용규모 지난해 수준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취업 한파가 올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에는 경기가 풀리지만 정부·공기업·금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기관에 따라 대체로 올해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2천514명으로 작년의 3천200명보다 680명 정도가 줄어든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자리가 많이 줄어든 데다 정년도 연장됐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많지 않다"면서 "이런 수요부진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균 1만명 이상의 대졸자를 소화했던 공공기관들의 올해 신규 채용규모는 지난해 수준인 7천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해 공기업 채용규모가 1만4천명에 달했던 호황기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실제로 각 공기업의 올해 대졸 신규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규모를 늘리겠다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든 경우가 많았고, 아예 올해 채용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곳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각 공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난해 80명을 선발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아직까지 올해 채용계획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정규직을 선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올해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벌여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아직까지 신규채용계획을 잡아놓지 않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코레일도 현재까지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주요 금융·공공기관 채용 동향

	2009년		2010년	
	정규직	인턴	정규직	인턴
중앙공무원	3,200명	-	2,514명	-
금융감독원	30명	75명	30명 내외	75명 미만
우리은행	200명	1,360명	전년수준	1,500명
하나은행	280명	500명	350명 내외	미정
외환은행	200명	100명	전년수준	전년수준
기업은행	200명	174명	300명 이상	400명
산업은행	83명	209명	미정	200명 내외
삼성생명	80명	-	100명 이상	-
삼성화재	150명	100명	예년수준	예년수준
예금보험공사	20명	35명	예년수준	예년수준
신용보증기금	80명	200명	-	100명 내외
석유공사	38명	100명	38명 이상	30명 내외
도로공사	인턴 48명 정규직전환	50명	50명 내외	100명 이상

500대 기업도 바늘구멍
30대 대기업만 소폭 늘어날 듯

'일자리 창출'이 재계의 최대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인사포털인 인크루트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2010년 일자리 기상도'에 따르면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256개사의 채용 예정인원은 1만6천84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이 지난해 채용한 1만7천851명보다 5.6% 줄어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500대 기업 중 350개사가 응답한 가운데 158개사(45.1%)는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힌 반면 98개사(28.0%)는 단 1명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상위 30개사는 채용 인원을 다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3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14개사의 올해 채용 예정인원은 6천810명으로, 이들 기업이 지난해 뽑은 인원(6천750명)보다 0.9% 많았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지난해보다 채용규모를 줄일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 '건설' 업종이 작년에 비해 26.9% 늘릴 계획이고, 석유화학(4.8%)과 금융(0.5%) 부문의 채용인원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문화마케팅으로 '인피니티' 질주"

광주 방문한 한국닛산 그렉 필립스 대표

"올해 인피니티와 닛산을 합쳐 8천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했던 문화마케팅을 광주를 비롯해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4일 광주를 방문한 한국닛산 그렉 필립스 대표이사는 "한국은 경기회복세가 뚜렷해 올해 수입차 시장은 작년보다 크게 성장할 것이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많은 인피니티 4천대, 닛산 4천대를 매출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브랜드인 '뉴 G37' 세단과 준대형 스포츠 세단 'M37', 닛산 브랜드인 스포티 패밀리 세단 '뉴 알티마'를 잇따라 출시, 수입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렉 필립스는 "닛산 자동차에는 '자동차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전 철학이 담겨 있다"며 "친환경 최첨단 신차 출시와 함께 고객에게 기대이상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연 등 문화마케팅을 활발히 펼쳐 한국에 닛산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피니티의 콘셉트는 '젊음'이다. 중년이 이 차를 타면 10년은 젊게 보이고 사고도 젊어진다"며 "광주는 인구·경제력은 다른 지방에 비해 낮지만 사고가 젊고 개방적이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인피니티'에 잘 어울린다"고 광주에서의 선전을 기대했다.

한국닛산은 지난 2007년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인피니티' 공식 전시장을 개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